



습근평 총서기 기업과 전문가 좌담회 주재 시 강조

중국식 현대화 주제를 긴밀히 추진하고 개혁을 한층 더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왕호녕 채기 출석

【제남 5월 23일발 신화통신】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은 5월 23일 오후 산둥성 제남시에서 기업과 전문가 좌담회를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20차 당대회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할 데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데 대한 중심 과업을 확립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개혁의 중점을 각인하고 가치관을 확보하며 방식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심 과업을 완수하고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경정책 주석인 왕호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는 좌담회에 참석했다.

좌담회에서 국가전략투자그룹 리사장이며 당조 서기인 류명봉, 심수시 혁신투자그룹 리사장이며 당위 서기인 좌정, 안탑체육용품그룹 회장 정제충, 절강전화그룹 리사장 서관거, 독일보쉬 중국투자유한회사 총재 서대전, 항항공씨그룹 회장 풍국경, 북경대학 국가발전연구원 교수 주기인, 중국거시경제연구원 원장 황한권,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및정치연구소 부소장 장빈 등 기업과 전문가 대표 9명이 선후하여 발언했다. 이들은 전력체제개혁, 벤처투자, 전통산업에 대한 과학기술개조, 민영기업 관리체제, 외자기업 경영환경, 향향이 새 발전구도에 더 잘 융합되도록 추진, 개혁에 대한 인민대중의 획득감 증강, 도시와 농촌의 융합발전, 거시경제 관리체제 등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출했다. 발언 과정에 습근평 총서기는 이들과 깊이있게 교류했다.

발언을 청취한 후 습근평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당중앙이 중대한 결책을 내리고 중요한 문건을 제정함에 있어서 조사를 깊이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적으로



▲ 5월 23일 오후,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은 산둥성 제남시에서 기업과 전문가 좌담회를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추진하는 우량한 전통이다. 개혁 전면 심화와 관련해 제기한 의견과 건의를 관련 방면에서 참답게 연구하고 섭취할 것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개혁은 발전의 동력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보완하고 발전하는 데 착안하고 국가 운영체제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라는 총적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착안해 목표의 방향성과 문제의 방향성을 결부하고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중국식 현대화를 방해하는 사상 관념과 체제, 기제의 폐단을 타파하고 심층차원의 체제와 기제의 장애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강력한 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을 진일보 전면적으로 심화함에 있어서 주요모순과 모순의 주요면에 착안해야 한다. 우리 나라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체제와 기제를 구축하고 거시적 경제관리체제와 고품질 발전의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전면적 혁신, 도시와 농촌

의 융합발전 등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지지하며 사회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고 사회활력을 증강하며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기반이 잘 어울리도록 추진해야 한다. 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적 수요에 입각하고 가장 시급한 일부터 시작하고 실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리론혁신과 제도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기타 영역의 개혁도 전반국면과 전략적 문제에 착안해 개혁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지향은 우리의 분투목표이다. 개혁에 착안해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민의 생활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인민의 전반적 리익과 근본적 리익, 장원한 리익에 착안해 발전을 도모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새시대당의 군중로선을 견지하고 취업, 수입증대, 입학, 의료, 주택, 양로, 생명과 재산 안전 등 대중들의 희망사항에서 개혁의 착안점과 돌파구를 찾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 등 분야에서 개혁조치를 더 많이 강구하고 실제적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인민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증강하도록 해야 한다.

록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칙을 존중하지 않으면 부정적 역할을 일으킬 수 있다. 우량한 전통을 전승하고 혁신을 도모하며 당의 전면적령도, 맑스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도로 등 근본적인 것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는 한편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개혁의 계통적 집대성을 깊이 중시하고 전반적 관념과 계통적 사유로 추진해야 한다. 제반 개혁과 조치 사이의 조화를 강화하고 제 영역과 제 분야의 개혁과 조치를 함께 병행해 합력을 형성하고 총체적 효과성을 증강해야 한다. 개혁에 있어서 기획과 관철이 중요하다. 뜻을 박는 정신으로 개혁을 관철하고 적극적이고 주동적이며 착실하고 안정적인 선후 절차에 따라 실제적으로 사업을 밀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

리간걸, 하림봉이 좌담회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문 책임동지, 산둥성 책임동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외자기업, 항항과 오문, 대만 기업, 정정특신(专精特新) '소거인'기업, 자영업자, 전문가와 학자 등이 좌담회에 참가했다.

리홍충 길림에서 조사연구 시 강조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견지하고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법치보장 강화해야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충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길림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심각하게 터득하고 '두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있게 학습하여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터득력, 정치적 집행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법치보장을 강화하고 민족사무 법치체제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여러 민족의 단결분투와 공동 번영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리홍충은 선후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장춘시에 가서 조사연구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에서 민족변경지역이 문화관광, 변경무역 등 특색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초시설 건설 수준을 높이며 변강을 공고히 하고 진흥시키며 백성을 풍족하게 한 등 사업 정황을 고찰하고 인대대표의 집, 기층법률연락소 건설 성과를 실지 조사연구했다. 훈춘시 신안가두 장안사회구역에서 기층 간부, 군중들과 상감식(互嵌式)사회구역 창건 경험과 방법을 깊이있게 교류했다. 길림성박물관에서 동북지역 여러 민족이 왕래하고 교류하고 융합되어 공동으로 중화민족문화를 창조한 력사 발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다. 농산물 가공 선두기업에 가서는 현대화 농업이 여러 민족 군

중들을 이끌어 공동으로 부유해지고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동한 적극적 인 성과에 대해 조사연구했다.

리홍충은 장춘에서 좌담회를 소집하고 민족사무 법률연구 사업과 관련해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수립할 것을 제기한 것은 민족평등, 민족단결 등 맑스주의 민족리론의 정수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중화문명의 두드러진 특성을 심각하게 체현했으며 중화민족공동체 발전의 력사적 추세를 심각하게 전면했는바 당의 민족리론과 민족정책의 비약적 발전이며 중화민족에 대한 중대한 력사적 공헌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것은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수립하는 중요한 임무이다.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중화민족 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며 민족단결진보의 법률법규를 보완하고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법률책임을 강화하여 민족지역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여러 민족의 광범한 왕래, 교류와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헌법을 근본준칙으로 삼아 각 민족이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법률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법에 따라 여러 민족 군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전국인대 민족위원회 조무위원 파음조로, 부주임위원 왕지민, 길림성당위 서기이며 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경준해 등이 관련 활동에 참가했다.



5월 22일, '좋은 사람과 착한 행실, 사랑을 위한 질주'(好人善行 为爱奔赴) 공익도보문명실천활동이 장춘시 쌍양구 박산사회구역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활동은 즐거운 자원봉사와 공익, 건강운동의 생활리념을 창도하고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이 공익실천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어려운 학생과 군중, 로군인 등에 도움을 제공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모멘트’를 확대하여 새로운 협력 추진

— 길림일보사와 한국 강원일보사, 전략적 협력 협정 체결

5월 17일, 길림일보사와 한국 강원일보사는 한국 강원도에서 친선관계 체결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길림일보사-강원일보사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 쌍방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올해는 길림성과 한국 강원도가 우호적인 성도(省道)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길림일보사와 한국 강원일보사가 우호관계를 체결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30년간 두 신문사는 줄곧 빈번한 업무왕래를 유지해왔으며 격년 상호 방문의 형식을 통해 신문업무를 탐구하고 신문운영 경험을 교류했으며 신문사의 발전을 소통해왔다. 길림일보사 사장이며 총편집인

우신래는 길림일보사 뉴미디어 발전 상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두 신문사는 지면교환, 합동취재, 교류활동 조직, 인재양성 강화 등 면에서 협력을 진일보 강화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그는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대외 전파를 전개하는 지방 주류 매체로서 길림일보사는 현지화 뉴스 전파를 깊이있게 잘하는 동시에 대외선전을 꾸준히 탐색하고 실천하며 국제 전파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두 신문사가 뉴미디어의 우세를 발휘하고 업무교류를 강화하며 대외 전파 능력의 '새로운 경로'를 공동으로 확장하고 매체 협력교류의 '모멘트'(朋友圈)를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강원일보사 사장 박진오는 좌담회에서 본사 발전 정황을 소개하고 30년간의 우정으로 두 신문사의 관계가 날로 밀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이 두 신문사가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두 신문사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으며 길림일보사와 더욱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자원 공유, 우위 상호 보완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쌍방이 달성한 공감대에 근거하고 기존의 지면교환에 기초하여 뉴미디어 방면의 협력을 추가하는데 교환 내용에는 사진뉴스, 짧은 영상, H5, 음성파일 등이 포함된다. 길림일보사가 원고 교환을 발표하는 뉴

미디어에는 채널뉴스 APP, 길림일보 위챗 공중계정, 미니 블로그, 톱기사 계정, 틱톡 계정 등이 포함된다. 강원일보사가 원고 교환을 발표하는 뉴미디어는 강원일보사 홈페이지, 라디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및 강원일보사가 한국에서 유명한 네이버 사이트에 개설한 홈페이지 등이다. 네이버 사이트는 한국 인구의 90%를 커버하는, 한국에서 사용률이 가장 높은 사이트이다.

행사 현장에서 두 신문사는 각자 발간한 우호교류 30주년 기념 도서를 서로 주고받았다.

길림신문화대표단도 관련 행사에 참가했다.

/ 길림일보 장춘영기자

뉴스자원 공유하여 공동 발전 추진

길림일보사와 한국 경인일보사 전략적 협력 협정 체결

5월 17일, 길림일보사와 한국 경인일보사는 한국 경기도 수원시에서 좌담과 교류를 진행하고 <길림일보사-경인일보사 전략적 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일찍 2015년에 길림일보사 소속 신문인 길림신문사와 한국 경인일보사는 이미 <신문선전교류협정서>를 체결하고 우호협력관계를 맺었다. 이번 좌담회에서 두 신문사는 신문보도, 매체 융합, 인재양성 등 방면을 둘러싸고 실무적이고 깊이있는 교류를 진행했다.

길림일보사 사장이며 총편집인 우신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두 신문사는 새로운 력사의 기점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매체업종은 전례없는 변혁을 겪고있다. 이 변혁에 적응하기 위하여 두 신문사는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각자의 우세를 발휘하고 뉴스자원을 공유하며 협력 플랫폼을 공동으로 건설하여 공동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경인일보사 사장 홍정표는 길림일보 대표단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언론매체는 정보를 전달하고 민의를 소통하며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 두 신문사가 손잡고 함께 노력하여 중한 랑국 관계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탬 것을 바랐다.

알아본 데 따르면 한국 경인일보사는 한국의 주류 지역 매체의 하나로서 신문보도, 여론인도 등 면에서 광범한 영향력과 광호한 평판을 갖고 있다.

길림신문화대표단이 행사에 참가했다.

/ 길림일보 장춘영기자